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봄에는 하얀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진달래 개나리 향기에 취해
피랏 피랏 돌아간 세둔처럼 살고 싶다

여름에는 항상 쓰고 다녀야 하는 모자를 벗고
파란 바다처럼 맑은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가을에는
떨러댄 주사바늘로 멎은 온통이 아니라
물긋 물긋 비탈강계 수놓은 가을 경치에
흠뻑 빠져 살고 싶다.

겨울에는 저글저글한 향암재 때문에 멎이는 내
살랑거리는 속에서 멎어나 눈처럼 하얗고
끼리끼리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내 인생도
달콤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11.16 강 완희



사랑의 마라톤



강철구
봉사클럽 푸른마을 대표
삼성SDS 전자디지털팀장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기간은 짧지만 기온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 환절기, 이즈음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1월 4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는 중앙일보 서울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2만7천여명의 마라톤 주자 속에 삼성SDS사우 400여명도 하프/10Km/5Km의 출발선 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몸을 풀기에 분주했습니다. 가을 날씨치고는 유달리 쌀쌀했던 날이었지만 주자들 사이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 저마다 완주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출발신호와 함께 펼쳐진 이 날 레이스에서 출발주자 전원이 완주하였고 올해로 5회를 맞는 백혈병어린이돕기 사랑의 마라톤 행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우들의 열기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봉사클럽 "푸른마을"은 투병생활로 교육의 기회가 적어진 백혈병어린이에게 PC교육봉사를 할 목적으로 '96년에 결성된 삼성SDS내 사내 봉사클럽입니다. 이 클럽은 매주 수요일 서울대학병원어린이학교에서 환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PC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들의 PC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PC를 통한 자신감의 형성과 완치의 의지를 북돋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소아암의 경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70% 정도가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백혈병어린이돕기 사랑의 마라톤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푸른마을 봉사팀원이 주자로 나서고 1m를 달릴 때마다 1원씩 후원해 주는 후원자를 모집하여 여기에서 모아진 기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비로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첫 7명의 주자가 완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다섯 번째 마라톤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10명의 환아의 치료비를 후원할 수 있어서 푸른마을 봉사팀원 모두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어린이와 가족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보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날 펼쳐진 사랑의 마라톤행사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사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강요된 봉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몸소 실천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서울 시청 앞에 8M에 달하는 "사랑의 온도계"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모금액 목표를 25% 상향조정했고 이 목표를 기준으로 온도계로 모금 현황을 표시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동기유발을 기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밀 사회저변에 이웃사랑의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온도계의 눈금을 보지 않아도 유달리 추울 거라는 올 겨울, 온도계로는 잴 수 없는 따스함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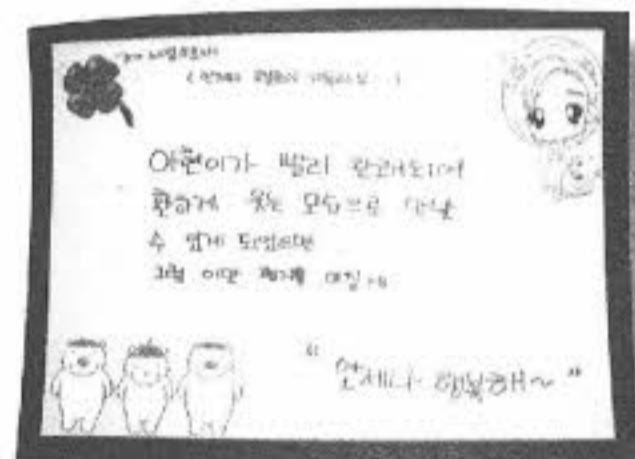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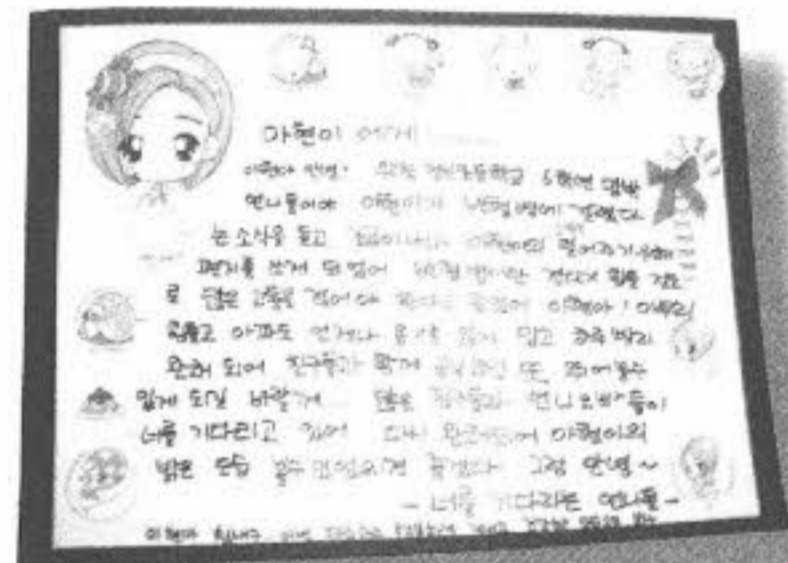
아현에게...

아현아, 안녕? 우리는 정선초등학교 6학년 mim반 언니들이야.
 아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아현이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어.
 백혈병이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들었어.

아현아!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빨리 완쾌되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뛰어놀 수 있게 되길 바랄게...
 많은 친구들과 언니오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 완쾌되어 아현이의 밝은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 너를 기다리는 언니들 -

추 신: 아현아, 힘내구... 이번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아현이가 빨리 완쾌되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그럼 이만 편지 마칠게. "언제나 행복해~"



7세 소녀 아현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대혈이식과 제대혈 은행

제대혈이란 신생아 분만 후 태반과 탯줄의 혈관에서 얻을 수 있는 혈액을 말한다. 제대혈에는 성인의 골수에 비해 혈액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골수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대신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상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대혈을 임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임상경과들은 어떠한지 향후 이를 보다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제대혈의 채취 및 냉동보관

신생아가 분만되면 산모의 몸속에는 태반과 탯줄 즉 제대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때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태반까지 완전히 만출된 후에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탯줄을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 산모의 혈액이 제대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채혈 백을 이용하여 제대정맥을 천자하여 채취하게 된다. 이때 혈액 1mL라도 더 많이 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채취하는 혈액의 양이 곧 제대혈이식의 성공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평균 100mL의 제대혈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한 제대혈은 실험실로 가져가서 냉동보관을 하기 위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대혈을 채취하면 신생아나 산모에게 빈혈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다. 실험실에서는 원심분리법 등을 통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다음 냉동보호제를 첨가하여 최종 50mL 정도의 제대혈을 -196°C의 액화 질소 탱크에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보관된 제대혈은 최소한 15년 이상은 기능의 변화없이 보존할 수 있다.

2 제대혈이식과 골수이식의 차이점

제대혈이식이든 골수이식이든 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술과정은 동일하다. 즉, 환자에게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조혈모세포이

식 전처치를 한 후에 골수나 제대혈을 환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이 가능하며, 최근 들어서는 골수이식대신에 오히려 말초혈이나 제대혈을 이용한 제대혈이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제대혈은 골수에 비하여 채취과정이 안전하고 간편하며, 골수 공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다른 감염의 위험성이 적다. 또 제대혈 조혈모세포는 골수나 말초혈내의 조혈모세포에 비하여 면역학적으로 미성숙 상태이므로 이식편대 숙주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골수이식이나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보다 생착이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며, 채취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체중 40kg이하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체외증폭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이러한 단점은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3 제대혈이식의 국내외 현황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은 Gluckman 등에 의해 1988년 처음 성공한 이후로 2000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례 이상 시행될 정도로 임상적으로 그 이용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제대혈이식은 골수이식에 비하여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발생 빈도와 정도가 덜하다는 장점 때문

에 비혈연 관계(타인)의 제대혈, 특히 조직적합항원이 불일치하는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발표를 보더라도 비혈연관계의 제대혈이식을 받았던 총 562명의 환자들중에서 조직적합항원이 1개 이상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가 93%, 2개 이상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가 5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2%의 생착율과 함께 골수이식과 비슷한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적합항원이 1개라도 틀리면 치명적인 이식편대숙주질환 때문에 거의 시행할 수 없는 골수이식에 비교한다면 훨씬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국내에서도 1996년 처음으로 제대혈이식이 시도된 이후에 2001년 11월까지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유전성 질환인 고셔병 등 총 34례의 제대혈이식이 시행되었다. 제공된 제대혈은 형제간 제대혈보다는 국내 제대혈은행을 통한 타인의 제대혈이식이 더 많은 비율 (약 70-80%)을 차지하고 있다.

4 제대혈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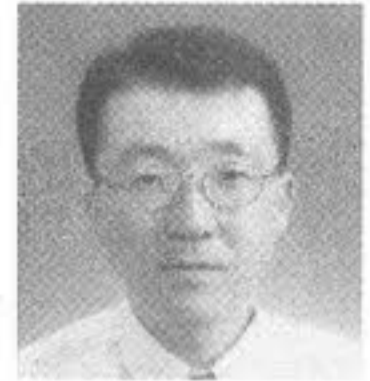
골수은행에서는 일반인들의 골수를 기증받기 위하여 조직적합항원을 검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해두었다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골수기증자에게 연락하여 골수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골수기증 의사를 밝혔

다가 막상 환자에게 기증을 해주어야 할 때 그 기증의사를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놓치는 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혈의 경우 어차피 폐기처분하고 있는 태반 및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므로 제대혈 기증의사만 밝히면 혈액을 전부 채취하여 냉동보관해 두었다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을 때 곧 바로 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골수은행을 통하여 이식하는데 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제대혈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3개월 정도면 이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골수은행은 타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제대혈은행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과 같은 악성질환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보관해 둘 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제대혈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제대혈이식 및 은행의 운영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유럽의 경우는 각 대학병원이나 지역 제대혈은행에서 30,000개 이상의 제대혈을 냉동보관하고 있다. 이들 각각 은행들은 GRACE NETWORK와 NETCORD DATABASE 등을 통하여 제대혈은행 자료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이식센터와 연결시켜주는 체계를 갖추어 유럽 전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대혈을 공급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00 unit 이상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몇 개의 조정 센터에서 대학병원 및 지역 제대혈은행의 자료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제대혈이식을 위한 검색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센터끼리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식센터에 제대혈을 공급해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전국에 9곳의 제대혈은행이 설립되어 1999년 8월 현재 5,000 unit 이상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으며, 제대혈이식도 300례 이상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전국 제대혈은행 설립과정을 보

면 1997년부터 제대혈의 처리 및 이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제대혈이식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전국 제대혈은행을 설립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2001년 말 현재까지 총 7,000-8,000개 정도의 제대혈이 냉동보관되어 있는데, 1996년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삼성서울병원, 1998년에는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벤처기업(라이프코드, 히스토스템, 메디포스트)에서도 제대혈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대혈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제대혈은행이 남발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 부산 경남지역의 대학병원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관심있는 분들끼리 모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당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제대혈은행인 부산 경남 지역제대혈은행을 2000년 5월에 설립하였다. 부산 경남 지역제대혈은행의 운영 과정을 보면, 우선 부산 경남 지역제대혈은행의 7개 지정병원에서 각각 산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제대혈을 채취하여 제대혈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으로 보내게 된다. 동아대학교병원에서는 제대혈을 제공한 산모의 동의서나 병력기록, 그리고 신생아 및 제대혈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함과 동시에 제대혈을 냉동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모여진 제대혈은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검색의뢰가 있을 경우 타 제대혈은행 혹은 골수은행과 연계하여 데이터 관리를 공유하게 된다. 제대혈은행의 보다 효율적인 검색과 공급을 위하여 부산 경남 지역제대혈은행과 삼성서울병원, 메디포스트에서는 한국골수은행협회와 함께 2001년 6월 중앙제대혈 데이터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계적인 검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중에 있어서 향후 효율적인 제대혈 검색 및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아의대 소아과
이영호 교수

한편, 제대혈은행은 이와 같이 순수한 기증의 목적으로 제공된 제대혈을 관리하는 공공업무이외에도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제대혈을 지정 보관 운영하는 가족은행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가족용으로 제대혈을 보관 의뢰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기증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제대혈은행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공은행의 활성화가 아주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아직까지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이식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개인 독지가나 민간 단체 차원에서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제대혈은행을 하루바삐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한 부산 경남 지역 제대혈은행은 뜻있는 사회단체와 의료계의 자발적인 지원금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제대혈 은행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부산광역시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제대혈은행 관련사업에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우체국 훈 사랑의집'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부산 경남 지역제대혈은행 운영에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업이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나 지방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버지, 백혈병, 想念

想念 하나, 진단

1997년 10월 어르신들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옆에 악성종양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으나, 골수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이 되어 버린 경희의 해맑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 멍쩍게 고개를

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시작... 정말... 끝은 있을까?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왜 하필 경희에게 이런 불행이...'. 그 해 겨울은 정말 길게, 한낮에도 하늘은 검은색으로 느껴졌습니다.

想念 둘, 치료

관해가 되고 공고유지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방사선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2시간이 넘는 대화를 하면서 완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여 되었을까? 어느 날 밤늦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침대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경희를 보았습니다. 고개 들어 쳐다보고는 계면쩍게 빙그레 웃는 경희. 무언지 모르게 찡하는 온 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치료 후 경희의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내부에서 '됐어, 됐어.'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음날 동네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경희의 천사 같은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머리카락을 보기 힘들었는데, 경희의 머리에서 조금씩 머리카락이 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환한 미소를 띄기도 하며, 밖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것을 보며, 고마움과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2000년 1월 대지가 꿈꿈 열고 눈이 내리는 겨울, 어느 일요일에 새빛누리회 행사에 참여하여 관악산 연주대에 갔습니다. 경희는 혼자 걸기도 하고, 업히기도 하며 올라갔습니다. 비록 얼굴은 백짓장처럼 희었지만, 온 몸 가득 땀흘리는 경희를 보면서 걱정보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경희

1993년 4월 6일 생
1997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2001년 8월 항암치료 종료
2002년 응암초등학교 2학년 재학

想念 셋. 완치

올 8월에 드디어 경희의 항암치료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지금 경희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3월에는 급우들 90%의 지지를 받고 월반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想念 넷. 가족

경희가 진단 받은 후, 고향에 계신 경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침저녁으로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고, 동생 청희는 갑자기 언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언니 위주의 생활에도 불평하는 기색 없이 언니를 도와주는 청희가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온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想念 다섯. 그리고 . . .

치료를 하면서, 희망을 갖고 생활하는 게 제일인 듯합니다. 불행의 시간은 순간입니다. 짓궂은 시샘에 잠시 실랑이를 한다고 여기시고 힘내십시오.



가족이 다함께한 어느날
(아빠 한관훈, 엄마 오명선, 동생 한청희)



심터에서는...



서울 우체국 훈사랑의집



'훈사랑의집' 이 여의도를 떠나 이곳 원효로에 자리잡은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60가족 160여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이 되자마자 '훈사랑의집' 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자는 어머니들의 깜찍한 요청에 못 이겨, 며칠 전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소원을 적은 카드를 트리에 달았습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내년에는 모두 이루어졌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전성미>

부산 우체국 훈사랑의집



지난 9월부터 각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난아저씨와 함께 페이스페인팅, 풍선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일보다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별난아저씨,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는 후원자님, 생일잔치 및 훈사랑의집의 운영을 후원해 주시는 서대신동 부산은행 직원들, 무엇보다도 이 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웃음이 있기에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광주 우체국 훈사랑의집

요리는 즐거워요 ^^

매주 화요일마다 광주 훈사랑의집에서는 지글지글, 조물조물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12월 4일 환아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도넛츠도 만들어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맛보는 시간..... 부럽죠!!
매주 화요일 오후, 광주 훈사랑의집으로 오세요~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대구 우체국 훈사랑의집

변덕스러운 날씨와 수두로 많은 아이들이 힘들게 보낸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입니다. 대구는 벌써 첫눈이 내려 병원에 있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그동안 진행되던 어머님들을 위한 인터넷 수업과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미술과 학습지도프로그램도 종파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대구 훈사랑의집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제일생명의집



따스한 겨울을 보내세요!

'소아암을 이긴 아이들' (2001년 가을호 참조)의 주인공이었던 도애와 도애어머니가 어느 날 사무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도 양손에 직접 뜨개질을 한 예쁜 털모자를 하나가득 들고 말이죠. 주위 분들과 함께 이틀동안 부지런히 만든 12개의 모자는 제일생명의집에 머물고 있는 꼬마친구들에게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도애와 어머니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무사히 항암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건강해진 도애의 정기가 우리 꼬마친구들에게도 전달되어 항암치료가 끝나는 그 날까지 깨끗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생명의집 '신혼방' 되다!

COMM101, funiG, 우먼센스에서 불박이장을 설치해주셨습니다. 좁은 공간에 비해 이용자들이 많아 수납공간이 부족했었는데, 덕분에 짐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장만 떼다가 집에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부러워하실 정도로 예쁜 장입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구경은 공짜니까요! 대신 양손은 무겁게...

<담당 사회복지사 석진경>

♡쉼터 후원회원 모집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쉼터와 함께 할 따뜻한 마음의 후원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금액

- | | |
|--------------------------------------|-------------------------------|
| <input type="checkbox"/> 월1천원(어린이회원) | <input type="checkbox"/> 월5천원 |
|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
| <input type="checkbox"/> 년회원(5만원 이상) | |

* 지로 및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국 (02) 766-7671~2
 우체국 훈사랑의집(서울) (02) 704-8310
 우체국 훈 사랑의집(광주) (062) 234-5528
 우체국 훈 사랑의집(부산) (051) 244-7677
 우체국 훈 사랑의집(대구) (053) 253-7671

♡우체국 훈 사랑의집 신규후원자

◆ 우체국 훈 사랑의집 신규 후원자

(2001. 9. 30. - 2001. 12. 10.)

- 서울 : 문승택
- 광주 : 김명희 김성완 김용운 류복자 박경아 장가신
- 부산 : 강희근
- 대구 : -

푸른새싹

시골에 다녀오던 지난 일요일.....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축축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계절에 한번, 일년에 네 번 받는 가슴 설레는 소식지를 일요일. 어둠 내린 시각에 보게 되었죠.
이번에는 또 어떤 어린 친구들에게 고마운 소식을 전했을까하는 궁금함으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캠프소식, 1400원의 승리와 결실, 또 쉼터소식.. 좋은 소식들이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모았을 소중한 헌혈증서, 후원물품들..
그 속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고통과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겠죠?

음.. 시골에 왜 다녀왔냐구요? 궁금하시죠?
마늘을 심었습니다.
거름을 흠뿌려 땅을 일구고 정성어린 땀과 눈물로 오랜 시간을 지내야만 푸르디푸른 초록의 마늘 싹을 보는 거랍니다.

마늘을 심으면서 굵은 땀을 많이도 흘렸죠. 조금씩 비가 내리더군요.
질퐁질퐁 땅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일주일쯤 지나면 땅을 뚫고 올라온 싱싱한 푸른 새싹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승리한!

여기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인사 한마디할래요.
힘내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언니가 파이팅 할게요.
얼른 건강을 되찾고 우리 같이 놀러가요. 어때요?

시월에... 마산에서
천사언니 드림^^

위 글은 천사백회원(천사 5453) 최필순 님으로부터 받은 편지글입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동봉해주신 말린 꽃잎들을 보고 사무국 직원들 모두 감동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친구들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합니다.

신규회원 소개(2001. 9. 21. ~ 2001. 12. 10.)

곽은경 권태호 김 수 김계원 김대준 김동빈 김미구 김성민 김정운 문승택 박 준 박미선 방숙영 성동현 손석진
이승영 이승은 이은숙 이은주 정윤상 정준영 조영준 조유진 최용주 최찬양 한송인 허성준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 조흥,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단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766-7671~2)

※ 한뜻소식란에 실을 한뜻후원자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시 등 형식 및 소재 자유)

♥ 특별후원환아 소개 (2001. 9. 1. - 2001. 11. 30.)

2001년 9월

검은베레21 3,000,000

엄승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원주기독병원)

2001년 10월

MBC 칭찬합시다 127,000,000

남덕우(급성림프구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

박준범(골육종,서울대학병원)

박진영(조직구증식증,여의도성모병원)

서아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중앙병원)

유효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이승철(만성골수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

전재필(신경모세포종,동아대학병원)

정수진(급성림프구성백혈병,고대안암병원)

차혜미(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최은지(만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병원)

최재원(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마국선(뇌종양,전남대학병원)

(주)에스콰이어 10,000,000

문강호(뇌종양,서울중앙병원)

(주)컴팩코리아 6,000,000

기동욱(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박태현(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병원)

이하영(뇌종양,서울대학병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3,000,000

장지훈(급성림프구성백혈병,신촌세브란스)

개인후원자 (최연희, 허은숙) 5,000,000

신 현(뇌종양,서울대학병원)

이한결(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개인후원자 (전증호) 500,000

이성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ㅎ늘타리 5,500,000

김현영(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병원)

나상일(신경모세포종,고신의료원)

이민우(골육종,고신의료원)

2001년 11월

(주)컴팩코리아 6,000,000

윤석환(림프종,경북대학병원)

장대성(망막모세포종,이대동대문병원)

표다인(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주)삼성SDS 32,000,000

김소라(신경모세포종,서울중앙병원)

박성훈(만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유선석(선천성면역결핍증,삼성서울병원)

이두리(급성혼합성백혈병,이대목동병원)

정형권(만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병원)

조민희(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조하나(간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ㅎ늘타리 2,500,000

이민우(골육종,원자력병원)

드림팩토리 13,000,000

김태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

정석표(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북대학병원)

최민정(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병원)

사랑이 모이는 곳

애니콜 사랑의 클릭



(주)삼성전자(부회장 윤종용)의 '애니콜랜드(www.anycall.com)' 동호회 AMC(Anycall Membership Club)회원들은 '사랑의 클릭' 행사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고대안암병원에서 치료중인 받은 박이삭 어린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행사이며 현재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클릭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애니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지금 애니콜랜드 동호회로 가입하여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이 행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드디어 백두대간 종주하다!



(주)컴팩코리아(대표 강성욱)의 사내 동아리인 컴팩등산반(회장 강신홍)은 지난 6월 15일부터 '백혈병 어린이 돕기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 11월 21일 종주를 마감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30여명의 종주대원이 1km를 등정할 때마다 사내직원과 후원자들이 100원씩 후원하여 총 1,800만원을 모았으며 이는 우리 재단에서 추천한 9명의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1,200km를 종주해야했기에 등산반 대원들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산을 올랐으며 얻은 것은 온몸에 상처와 수요일까지 지속되는 피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원들의 고생을 알았는지 지원을 받은 9명의 어린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사랑의 전령사

드림팩토리는 '차카게살자' 두 번째 행사로 '무적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금액 전액을 우리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승환씨의 신념이었습니다. 절대로 생색내지 말고, 이것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오로지 백혈병 어린이들을 조용히 돕고 싶다고.. 후원금은 김태일(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대학병원), 정석표(급성림프구성백혈병, 경북대학병원), 최민정(급성골수성백혈병, 동아대학병원)어린이에게 전달하였으며, 어머님들께는 이승환씨와 팬들의 정성이라고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 하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김이래(급성골수성백혈병) 어린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특전사들의 모임인 '검은베레21'에서 이래를 위해 각종 행사, 홈페이지 제작, 일본 언론과의 접촉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골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래를 위해 모금되었던 1억원 중 5천만원을 다른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던 이래 부모님은 나머지 5천만원도 이제는 필요없으시라며 재단으로 기탁하셨습니다. 재단과 '검은베레21'이 협의하여 1천만원은 이래의 장례비용 및 골수검색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보내드렸고, 나머지 4천만원으로 '이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래 기금'은 이래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치료뿐만 아니라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는 재단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이래 부모님! 끝까지 평온한 모습 잃지 않으시려 노력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또한 후원금 사용에 동의해주신 '검은베레21'의 관계자 여러분! 후원금을 모아주셨던 많은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故김이래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의 보험금 후원운동

ING생명보험(주)에서는 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의 권한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지정하면 보험금 집행시 가입자의 이름으로 후원금이 전달되는 '사랑의 보험금 후원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자선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립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필요한 한뜻, 한사랑후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참, 지로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천사백 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김진모(남/만 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



김준우(남/만 5세)
급성혼합형백혈병
삼성서울병원



임민지(여/만 2세)
신경모세포종
서울대학병원



신다혜(여/만 10세)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동아대학병원



원세명(남/만 2세)
신경모세포종
여의도성모병원



이민지(여/만 7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서울대학병원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1. 11. 30. 현재)**

참여후원자 : 3,142명
구좌수 : 12,201구좌

※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되신 후원자님께서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1. 9. 1. - 2001.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514-07-0175564)

광주은행(200-107-315315)

국민은행(031-01-0414-356)
김계원 손연실 신호정

기업은행(090-000260-04-022)
노정빈 박성준

농협(029-01-170940)
김은미 김한엽 노태현 박순희 신현정 심일수
유미희

대구은행(004-05-179828-001)

부산은행(070-01-021379-8)

서울은행(16508-2945601)
최윤정

신한은행(394-01-000694)
김웅

외환은행(141-22-00799-6)
김준영 문용

우체국(012989-01-003313)

제일은행(225-20-385050)
라경선 임시혁

조흥은행(367-01-192434)
원경연 조가희

주택은행(488401-01-001485)

하나은행(144-121835-00105)
이승훈

한미은행(100-59711-251)

한빛은행(112-04-112571)
김유미 신진규 전달래 조길제 한빛은행여의도

지로(6981440)
김미정 김지희 김태형 라현영 신인숙 오순영
유현영 황창연

◆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필요한 천사백후원자님께서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 천사백 후원금 1,400원 중 100원은 후원자관리비용
(예:우편발송료, 지로용지 등)으로 쓰여집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1. 9. 1. ~ 2001. 11. 30.)

SK텔레콤(209) 한국통신(11,969) 뉴컴퓨터정보학원(90) 원잡지사(3) 컴팩코리아(4)
 신세기통신(58) 영광 원자력 본부(177) INTER PARK(41) Dream Factory(63)
 채성석(4) 김유재(2) 안현석(2) 한희구(3) 권진욱(3) 이남희(6) 황교상(6) 조길제(225)
 이동원(71) 노홍선(150) 유효림(58) 김성덕(2) 김성진(1) 민상학(3) 천성철(9) 신충만(50)
 정희연(217) 이규진(1) 김덕구(김태현 父)(10)

◆ 특별 후원금

2001년 9월 구의교회 100,000 김상희 100,000 맛을찾는여행 100,000 백세열父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0 새생명동우회 500,000 에스콰이어 2,000,000 전남체신청장 100,000
 행정자치부 8,400,000
 10월 김장규 150,000 담배인삼공사 15,000,000 맛을찾는여행 100,000 부산은행 200,000
 에스콰이어 2,000,000 카이저스타우틴한인교회 732,000 SK텔레콤리더스클럽 2,635,000
 11월 구의교회 200,000 김응운 100,000 김태형 130,000 대신어린이집 129,920
 맛을찾는여행 100,000 복스넷 371,000 부산은행 100,000 송인욱 240,800
 에스콰이어 2,000,000

◆ 후원물품 (2001. 9. 1. ~ 2001. 11. 30.)

경북대병원사회사업실 고추가루, 참기름(1), 블랙세트(1) 고도애母 모자(12) 김경훈 CD카세트(1)
 레고코리아 장난감(700) 류영선 도서(22), 카세트테이프(9), 퍼즐(1) 이영진母 쌀 삼성SDS 냉장고(1)
 최영석 치약(20), 참기름(6), 학용품 우먼센스·funiG·COMM101 불박이장(1) 손민기祖父 쌀
 박찬중 소금(20), 피죤(9), 세제(3), 주방세제(12) 삼성생명 동작지점 약세사리구슬, 미술용품
 윤상현母 휴지(6), 반찬통(2), 컵(3) 손호연 비디오(8) 송호찬 파일박스(1) 유희영 조명기구(6)
 정보통신부 객종시계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제일생명의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일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1년 겨울하는  **종근당**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로)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